

조선대 약대 정광현 동문, 모교에 2억원 장학금 기부



“후배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후회없는 삶을 살길 바라요. 100% 후회없는 삶은 없겠지만 후배들이 매사에 용기를 갖고 전진하길 응원하며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올해 84세인 정광현 조선대 약대 5회 졸업생이 후배들을 위해 모교에 장학금으로 써 달라며 2억 원을 기부했다.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제5회 약학대학 졸업생인 정광현 동문이 장학금 2억 원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조선대 본관에서 열린 행사에 발전기금 기부식, 정광현 홀 제막식, 재학생 간담회, 약학대학 투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기부식에는 정광현 동문과 둘째 아들 정형균씨, 며느리 김영미씨, 민영돈 조선대 총장, 기성환 약학대학장, 정현철 약대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나주 출신인 정광현 동문은 1962년 조선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동대문구 고려대 인근에서 약국을 약 40여 년간 운영했다. 이후 고향인 나주로 내려와 지내면서 모교 후배들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평소에 늘 ‘세상에 나왔으면 무언가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고려대에 먼저 기부를 했고요. 지역에서 상경한 학생들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리고는 이번엔 모교 후배들을 위해 기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날 그의 이름을 딴 ‘정광현 홀’에서 약학대학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연예계 스타들, 집중호우 피해에 ‘은정의 손길’

임영웅·유재석·김혜수 등



왼쪽부터 임영웅·유재석·김혜수·씨아.

국내 연예계에서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은정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가수 임영웅은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소속사 물고기뮤직과 함께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성금은 피해 지역의 복구와 구호 물품 제공, 주거 지원 등에 쓰인다.

임영웅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우 김혜수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 공개 연예 중인 배우 신민아와 김유빈도 희망브리지에 각각 성금 1억원을 기탁했고 방송인 유재석, 여예스더, 가수 이찬원과 씨아

도 성금 1억 원씩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를 통해 희망브리지 개인이건 기부를 받은 희망브리지 아니스클럽의 회원이 된 씨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효주가 5000만원, 임시완이 3000만원, 박나래와 밴드 잔나비는 각각 1000만원을 이 단체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아시아인권문화재단, 광주기독병원과 협약



아시아인권문화재단(대표 주은표)과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용수)이 1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오전 광주시 남구 광주기독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광주기독병원부원장, 의료혁신부장, 행정부장 등과 아시아인권문화재단 대표, 각 나라별 통역사(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참석했다.

광주기독병원은 “진료를 의뢰한 환자에 대해 보다 성실히 진료하겠다”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

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인권문화재단 주은표 대표는 “광주기독병원과 숙원사업인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주민들의 병원 방문 부담이 줄고, 이주민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자신을 돌보면서 한국에서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남택근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화순전남대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남택근(사진)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에서 수여하는 ‘제33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지난 1991년부터 매년 과총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양한 분야의 우수 논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논문 교신저자인 남택근 교수는 방사선종양학과 조이준(제1저자), 정재호 교수와 함께 ‘정위 체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국소 간세포암종 환자의 예후 인자로서의 PIVKA-II’ 논문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 교수는 같은 논문으로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년도 학회지의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수여하는 ‘ROJ (Radiation Oncology Journal) 논문상’을 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호우피해 지역에 긴급구호품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1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구호품 및 비상식량 305세트를 지원했다.

〈사진〉 산사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일시 대피자가 많이 발생한 중남 200세트, 전북 100세트, 광주-전남 50세트를 지원했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적십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별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피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 직원과 봉사원이 긴급구호품에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아 옥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불면해도 괜찮아 4(재)	00 가슴이 뚫다(재)	15 헬로킴지 과학교실(재) 30 주니토니 이야기(재) 45 팬티히어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전국 TOP 10 가요쇼
0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만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꿀잼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3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03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내 비밀친구 햄찌(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04	00 시사건건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0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00 생촌계기 코드레드(재)	1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0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0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비밀의 여자	05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08	30 일일연속극 금이아 옥이아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09	00 KBS 뉴스 9	50 가슴이 뚫다	0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55 더 라이브	00 심야괴담회	20 강심장리코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55 아이 러브 스포츠	20 100분토론	
12	00 사랑의 가족(재) 55 생활의 발견	20 세컨 하우스 2(재)	45 TV예술무대	00 2023 중흥 S클래스-JDX배 고교동문골프대회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	17:25 만스타맨션(재)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그린조기 구조대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55 한글용사 아이아(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캣
07:00 빅 블루	12:10 귀하신 몸	18:40 EBS 뉴스
07:15 하프와 친구들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돌레길
07:30 띠띠뽀 띠띠뽀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45 뽕뽕뽕 부부맨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19:50 극한직업
08:00 당동맹 유치원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출동! 슈퍼왕스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08:35 한글용사 아이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나만 알고 싶은 여름 명당 2부 말 부자집의 꽃피는 날)
08:50 만스타맨션	16:40 당동맹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0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7:00 페퍼 피그	22:45 건축탐구 - 집
09:20 인간과 바다	17:10 오우오우 내 새끼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티타와 쿠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8일(음6월 1일 丁丑)

<p>36년생 희망의 보따리를 짊어진 이의 재가 있었다. 48년생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행한다면 불행함은 없을 것이다. 60년생 한시를 놓게 될 것이니 부담감 갖지 말라. 72년생 불안 상태가 계속되면서 회의를 느끼게 된다. 84년생 원칙을 준수하고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96년생 심심하지는 않았다. 행운의 숫자 : 14, 84</p>	<p>42년생 때와 장소를 잘 가리지 않으면 역효과가 난다. 54년생 소폭적인 이동수가 비칠 뿐이다. 66년생 한 눈 팔지 말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바에 주목하라. 78년생 조금도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90년생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한다. 02년생 삶이 올라다 보면 완성한다. 행운의 숫자 : 23, 61</p>
<p>37년생 본격적으로 주력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49년생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61년생 상호 관계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73년생 힘들더라도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금전운에 대박 나게 되어 있다. 85년생 공을 들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97년생 중요한 일을 단행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9, 54</p>	<p>43년생 혁신적인 방안을 도모해야 할 때다. 55년생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강도가 약한 것이 문제다. 67년생 목표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다. 79년생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 열려져서 알아도 되느니라. 91년생 아직은 현저함이 보이지 않는다. 03년생 장기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행운의 숫자 : 07, 95</p>
<p>38년생 이미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 전개되었다. 50년생 천천히 하는 편이 완벽함을 도모하기 쉽다. 62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74년생 마무리까지 잘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86년생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기이다. 98년생 측면에 따라 연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9, 56</p>	<p>44년생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규모와 부가적 이익이 달라질 것이다. 56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대처하라. 68년생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이니라. 80년생 적절히 맞아떨어져서 쉽게 풀릴 것이다. 92년생 이상적인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라. 04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라. 행운의 숫자 : 13, 85</p>
<p>39년생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 편편만을 인식하지 말라. 51년생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진용을 정비할 때다. 63년생 무너진 길을 고쳐 닦는 임정이 된다. 75년생 중간에서 참으로 난처한 임정이 될 수도 있다. 87년생 흠 속에서 묻힌 옥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다. 99년생 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한다. 행운의 숫자 : 17, 63</p>	<p>45년생 임시 봉함의 형태에서는 위험하므로 정대로 아니 된다. 57년생 질도 중요하지만 대량이 필요한 시기이다. 69년생 드러나지 않은 정황까지 인식할 수 있어야겠다. 81년생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이거늘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다. 93년생 기존의 것에 신성한 요소가 가미되는 대국이다. 05년생 결정타를 때릴 때가 왔다. 행운의 숫자 : 32, 83</p>
<p>40년생 현재의 판세에 있어서 당해 사항 외에 굳이 여유분을 뽐낼 필요까지는 없었다. 52년생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거의 대동소이하니 일괄 처리해도 된다. 76년생 비슷한 사례를 참고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88년생 방법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크다. 00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5, 93</p>	<p>34년생 살리 위주로 판단해야 할 때이니라. 46년생 직관에 따르면 무리는 없다. 58년생 흥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70년생 천하가 다 달라지면 두말하면 잔소리다. 82년생 중차대한 판단의 분수령에 놓여 있으니 장고를 거듭하라. 94년생 새로운 타계책을 찾지 않으면 답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25, 96</p>
<p>41년생 중대 고비를 넘기는 분수령이 되리라. 53년생 자가 당착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65년생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사법귀정하리라. 77년생 의외의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판국을 좌우하겠다. 89년생 일시적인 중흥 심리에서 기인한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01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0, 69</p>	<p>35년생 거두어들이는데 있어서 새어 나가는 것일 없는지 살펴보자. 47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걸림돌로 작용한다. 59년생 고정 관념을 버린다면 대체로운 기회를 접하게 된다. 71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83년생 지장을 줄 만한 하자가 보인다. 95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마가 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1, 80</p>